

2016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교회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

메시지 12
교회의 단계들
(1)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경: 계 2:1-7

- I.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 있는 일곱 등잔대로 상징되는 일곱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 세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 A.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들이었다.
 - B. 이 일곱 교회는 교회의 칠중(七重) 역사(歷史)를 상징한다-회복역 요한계시록 2 장 1 절 각주 1 을 읽을것.
 - C. 교회들의 여러 상태는 교회의 칠중 역사 중에 동시에 존재한다.
- II.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곧 실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유죄 판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한 주님의 실지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 A.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을 읽어 보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여러분이 이 두 장에서 그 길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 B. 일곱 교회에 보낸 일곱 서신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이기는 이들에 대한 부름으로 끝난다. 이기는 이들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들이다. 비정상적인 시기 동안에는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는 이들이다.
 - C. 오늘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하며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고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온다.
- III.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는 네 가지 주된 요점이 있는데, 바로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이다 - 계 2:1-7.
- A. 우리는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첫째가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 계 2:4-5.
 - 1.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는 것이 역대로 교회가 실패했던 근본 원인과 주된 이유이다.
 - 2. 골로새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반드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으뜸의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 골 1:18 하.
 - 3.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겼음을 의미한다 - 비교 시 73:25.
 - 4.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되어, 다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 고후 5:9, 14-15.

- a.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존귀함을 얻기로 결심하고, 오직 그분의 목표와 목적만을 관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 b.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이루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며 그분의 의도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이스라엘의 실패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렘 2:13), 교회의 하락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사실상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으뜸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6. 첫째가는 사랑은 틀림없이 모든 것에서, 즉 큰일에서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주인을 첫째가는 분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7.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 계 2:4-5.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고후 5:10), 분명히 우리의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혹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닐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한 일 중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실 것이다.
 - b. 오직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일들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다(고전 3:12).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하는 그들의 사랑에서 기원한 것이고, ‘사랑의 수고’ (살전 1:3)일 것이다.
 - c.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다 – 말 3:14.
 8. 주님께서 교회의 등잔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가 그 이후로 더 이상 외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a.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고 또한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방의 터 위에 서 있지만 금등잔대로 예표되는 삼일 하나님의 실재와 증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 b. 등잔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주님의 증거인 교회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가진다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것인데, 주님 또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 계 2:4, 6.
1. ‘니골라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정복하다’ 혹은 ‘보다 우월하다’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혹은 ‘평신도’를 의미한다.
 2. 따라서 ‘니골라당’은 일반적인 믿는 이들보다 자신들이 더 높다고 여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채택하여 세운 성직자 계급 제도였다. 주님은 이 니골라당의 일과 행위를 미워하시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
 3.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는 성직자도 평신도도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계 1:6, 5:10, 뵤전 2:5, 9). 중간 계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 C.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같이 훌륭하고 질서 정연하고 형식을 잘 갖춘 교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 – 계 2:7.
1.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고 매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며, 교회생활은 우리에게 낙원이 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다(창 2:9, 16). 그러나 사람의 타락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사람에게 막혔다(3:22-24).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사람이 생명나무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으며(히 10:19-20), 이 생명나무는 바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3.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가 지식과 함께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서 빗나가게 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보상으로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종교와 그 지식을 떠나 그분 자신을 누리는 일로 돌아서도록 하는 격려제이다.
 4. 주님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신다. 주님께서 이기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대신하게 하셨다.
 5.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 a.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그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b.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c. 이 세 가지,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한다.
- D. 사랑은 생명과 관계있고, 생명은 빛과 관계있다. 사랑과 생명과 빛은 일종의 삼일성(三一性)이다.
1.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한다면,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갖는다면 생명을 갖고, 또한 주님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가질 때,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 - 요 1:4, 빌 2:15-16.
 2. 등잔대인 교회의 빛은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에 개인주의적으로 비추지 않고, 반대로 단체적으로 비춘다 - 비교 계 2:5 하.
- E.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방에서 등잔대의 빛남인 예수님의 증거를 지킬 것이다 - 비교 계 12:17 하.
- F. 우리는 알파벳 ‘엘(L)’ 로 시작되는 이 네 단어, 곧 ‘사랑(Love)’, ‘생명(Life)’, ‘빛(Light)’, ‘등잔대(Lampstand)’ 를 기억해야 한다.
1. 우리는 반드시 모든 면과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러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2. 이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며, 이 생명은 그 즉시 생명의 빛이 된다 - 요 8:12.
 3.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단체적으로 등잔대로서 빛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등잔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로부터, 단체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옮겨질 것이다.
 4.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가질 것이고, 생명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며, 빛이신 그분을 비추어 낼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인 빛나는 등잔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시대뿐 아니라 더욱더 오는 시대에서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우리의 보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